

---

# 최근 라틴아메리카의 광산 개발과 사회적 갈등: 멕시코, 페루, 칠레를 중심으로

오삼교  
위덕대학교 공공행정학부 교수

핵심어: 은, 금, 구리, 광산, 원주민, 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 1.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에서 광산개발은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산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광산 개발현장에서는 오지의 원주민이나 개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광산개발 관련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OCMAL(Observatorios de Conflictos Mineros de America Latina)의 자료에 의거해<sup>1)</sup>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광산 갈등이 가장 많은 3개국 페루, 칠레, 멕시코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가장 주목받은 광산 갈등을 요약 소개한다. OCMAL이 통계로

1)참고한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conflictosmineros.net/>

제시한 이들 3개국의 광산 갈등은 2014년 2월 말 현재 각각 34, 34, 29건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 광산 갈등 198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주요 광산개발국이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며 비스무트는 3위, 몰리브덴과 납은 5위, 금은 9위의 생산국이다. 멕시코는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의 주도에 따른 광산 붐을 경험하고 있다. 1992년의 광산법에 의해 멕시코는 거의 5,1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800건 이상의 광산 프로젝트를 위해 300개의 광산회사에 개발권을 부여하였다. 국토의 70%가 광물 매장지역인 멕시코의 2014년 광산부문의 GDP 기여율은 4%로 예측된다(Godoy 2013).

페루는 세계 은 생산 2위, 세계 2위의 구리 매장량, 금 생산 6위의 광산국가로 광산부문이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페루는 후지모리 집권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광산부문에 외국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였으며 광산부문은 2012년 122억 달러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12년까지 누적 투자액은 538억 달러에 이른다(Hazin 2013, 19). 최근 국제상품가격의 상승으로 2005년 이후 광산부문은 1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여 왔으나 동시에 사회적 갈등도 크게 늘어 사회적 갈등의 2/3가 광산과 관련되어 있다.

칠레는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으로 구리는 칠레 GDP의 20%, 수출의 60%, 정부 수입의 1/3을 차지한다. 구리 덕분에 2000년 들어 칠레 경제는 매년 거의 6%씩 성장하였다("Mining in Chile..." 2013). 빈곤율은 크게 떨어졌고 공공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었다. 그러나 구리 매장량 감소와 광석 품위의 하락, 이로 인한 개발 비용의 증가, 부족한 에너지원은 칠레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독재시대에 만들어진 물 관리법이 일방적으로 광산회사에 유리하게 되어있어 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Tory & Adams 2013).

세 나라 모두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광산부문에 대한 외국

투자를 적극 장려해 왔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 광산부문에 재정수입을 크게 늘려왔다. 그러나 특히 멕시코와 페루에서는 지역주민이나 원주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크게 부족하였다. 이 글은 국가별 주요 개발 사례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로 인한 갈등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갈등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갈등 전개과정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발 양식의 주된 특징은 무엇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멕시코

### 1) 캐나다의 포르투나 실버와 사포테카 원주민

캐나다 광산회사 포르투나 실버(Fortuna Silver)는 5,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2006년 오아하카 주 오코틀란의 산 호세 델 프로그레스 인근에 있는 쿠스카탄(Cuzcatán) 광산 개발권을 취득하여, 2011년 9월 말부터 금과 은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조지역으로 물이 귀하였으며, 주민들은 광산개발로 생업인 농업에 필요한 물을 광산측이 사용하게 되면 물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광물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독성물질로 지역의 물이 오염될 것을 우려하였다. 광산 반대파는 주로 생계를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깨끗한 관개수를 원하는 농민들이었다.

사실 주민들의 이런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었다. 캐나다의 컨티넘(Continuum)사가 운영하는 같은 오아하카 주 칼풀랄팜(Calpulalpam) 광산은 주변의 주민들의 식수원을 고갈 오염시킨 역사가 있다. 이 지역 주 13개의 지류가 마을에 광산이 들어온 뒤로 완전히 말라버렸다. 지역의 샘은 모두 광석 가공 화학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으며, 그 결과 가축이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갔다. 이 지역의 파괴는 너무 끔찍하여 멕시코 환경보호청이 광산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도록 명령할 정도였다(“Mexico: Another opponent...” 2012).

주민들은 회사가 광산개발권을 취득한 해인 2006년부터 ‘오코틀란 계곡 주민 조정위원회’(Coordinadora de Pueblos Unidos del Valle de Ocotlán: CPUVO)를 조직하여 광산개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2009년에는 약 300명의 반대파 주민들이 광산 입구를 점거하였으며 점거 40일 후에는 700명의 경찰이 자동소총, 최루탄, 헬기를 동원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시위자들이 구타당하고 23명이 경찰에 체포되어 일부는 3개월까지 구금되었다. 이후 2010년의 시장 피살을 포함하여 2011년까지 3명이 살해되었다(Paley 2012b).

2012년 1월에는 회사 측의 배수로 공사를 저지하던 사포테카 원주민 활동가가 피살되었으며 3월에도 한 사람이 더 살해되었다. 석 달 후인 6월에도 반대파 활동가 두 사람이 총격을 당하였다. 이들은 모두 CPUVO 소속 활동가들이었다. 광산회사가 지역에 진출하자 광산 반대파와 지지파로 나뉘어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고 반대파에 대한 살해와 위협으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광산 개발 반대파들은 산 호세 델 프로그레소 시장이 2010년 선거자금의 대부분을 광산회사에서 받아 시정부와 광산회사간의 밀착관계가 있고 시정부가 공동체 전체보다는 광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회사는 시에 도시 인프라 사업 정비를 위해 2011년과 2012년에 1,300만 페소(90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였으나 실제로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De la O 2013).

## 2) 캐나다의 엑셀론과 라 시에리타 에히도<sup>2)</sup>

멕시코 두랑고 주 틀라우알릴로(Tlahualilo)에 위치한 농민공동체인 라 시에리타 에히도(Ejido La Sierrita)와 캐나다 광산회사인 엑셀론(Excellon Resources Inc)의 갈등은 2004년 엑셀론이 라 플라토사(La Platosa) 은광개발을 위해 에히도와 토지임차 계약을 맺은 데서 시작되었다. 에히도 농민들의 불만은 회사 측이 애초에 맺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지역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엑셀론은 2004년 두랑고 주 틀라우알릴로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라 시에리타와 임차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계약이었다. 주민들은 이에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부터 멕시코 환경인권 비정부기구인 문화·사회·경제 권리 프로젝트(royecto de Derechos Económicos, Sociales y Culturales, A.C.: ProDESC)의 지원 하에 광산 봉쇄로 불공정 계약에 항의하였다. 2008년 3달간의 시위 이후 회사와 에히도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회사는 새로 1,100헥타르의 땅을 임차하는 조건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기부, 정수공장의 건설 등 에히도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미팅이 무산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었다(Munson 2012).

2) 에히도(ejido)는 농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토지제도로, 1934년부터 정부가 농촌공동체의 명의로 불하하는 농지를 일컫는다. 원칙적으로 공동체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저당, 담보, 임대, 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에히도는 농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토지생산성의 저하,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개념의 미정착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있다. 1991년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Carlos Salinas de Gortari) 정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에히도 제도를 철폐하였으나 사파티스타(EZLN) 봉기와 같은 농민들의 저항을 야기하였다.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는 않는 제도이지만 실제 농촌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제도이다.

2011년 이후 에히도는 갈등 해결을 위해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엑셀론은 대화를 회피하면서 시간만 끌었다. 양자는 다시 2012년 7월 6일 대화에 합의하였으나 엑셀론은 대화 이틀 전에 일방적으로 대화 중단을 통보하였으며 분노한 에히도 주민들은 7월 8일 틀라우알릴로의 광산 진입로를 봉쇄하였다("URGENT ACTION..." 2012). 7월 26일의 회의에서 엑셀론은 에히도가 봉쇄를 풀면 토지의 50%를 즉각 반환하고 나머지 50%는 1년 후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2주일 후인 8월 13일 멕시코 정부의 장관실에서 열린 에히도 주민과의 협상에 나타난 엑셀론 측 대표는, 광산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어야 주민들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에히도 대표의 발언에 회담을 중재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일방적으로 협상장을 떠나버렸다("Excellon..." 2012). 며칠 후인 8월 29일 100여명의 군대와 경찰이 광산 진입로를 봉쇄한 주민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다 마침내 10월 24일 새벽 회사 측이 동원한 인력 180명이 경찰의 비호 하에 에히도 주민들의 광산 봉쇄 캠프를 철거하였다("Violent destruction..." 2012).

2013년 들어 국면은 법정싸움과 회사 측의 에히도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으로 접철되었다. 2013년 4월 지방농업재판소(Tribunal Unitario Agrario: TUA)<sup>3)</sup> 회사가 에히도에 1,100헥타르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Mexican landowners..." 2013). 2013년 7월 라 시에리타 에히도는 소유지를 매각도 임차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러자 라 시에리타 에히도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강화되었다. 11월 10일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 라 시에리타 에히도 주민 및 회사에 반대하는 노조원을 불법 체포하여 위협 심문한 후 이틀 만에 돌려보냈다. 경찰과 회사는 라 시에리타 에히도를 지원하는 ProDESC에 대해서

3) 농업재판소(Tribunal Agrario)는 농업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992년 1월 23일 설치된 특별재판소이다. 지방에 55개소의 하급심(Tribunal Unitario Agrario)이 있고, 최종심으로는 농업고등재판소(Tribunal Superior Agrario)가 설치되어 있다.

도 감시와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Detención arbitraria...” 2013).

라 시에리타 에히도와 엑셀론 간의 갈등은 멕시코 국내에서는 시위와 도로 점거, 광산회사의 무대응 내지 지역의 경찰 등을 동원한 위협과 압박으로 이어졌으나 국제적 압력도 병행하였다. 라 시에리타 에히도는 ProDESC의 지원에 힘입어 캐나다의 광산노조 및 NGO들과 함께 캐나다를 통한 회사 측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다. 2012년 5월 31일 라 시에리타 에히도와 이들을 지원하는 캐나다의 광산감시기구(MiningWatch), 캐나다노총(Canadian Labour Congress), 연합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대표들은 엑셀론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가 멕시코 라 플라타사 광산의 공동체 및 노동자들과의 분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결과 엑셀론의 CEO인 제러미 웨이드(Jeremy Wyeth)가 토론토의 주주 총회 직후인 6월 4일 사임하였다. 회사의 평판이 떨어지면서 엑셀론의 주가는 최저가를 기록하였으며 캐나다 연기금투자위원회(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CPPIB)는 거의 300만주에 달하는 엑셀론 투자 기금을 환수하였다(“Canadian Pension...” 2013).

엑셀론과 라 시에리타 에히도 간의 갈등 사례는 멕시코의 작은 에히도가 다국적기업의 모국에 있는 환경 및 인권단체의 지원을 받아 회사에 문제해결을 압박하는 새로운 저항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의의가 크다.

### 3) 캐나다 매그 실버와 베니토 후아레스 에히도

캐나다 매그 실버(MAG Silver)가 엘 카스카벨(El Cascabel) 광산회사를 통해 독점 소유하고 있는 치와와 주(州)의 신코 데 마요(Cinco de Mayo) 광산지역은 베니토 후아레스 에히도 지역으로, 22,000헥타르의 면적에 금과 몰리브덴이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건조한 날씨로 물이 귀하며 주민들은 광산개발로 인

한 수질 오염과 수자원 고갈을 우려하였으며 주민들은 광산회사의 카르멘 강 유역의 불법 지하수 시추를 고발하였다.

2012년 10월 한 부부가 치와와 주 시우다드 쿠아우테목(Ciudad Cuauhtémoc) 근처 고속도로에서 저격을 받고 피살되었다(Various 2012). 피살된 남편은 치와와 주 부에나벤투라 소재 베니토 후아레스 에히도 지역에서의 광산 개발을 반대한 활동가였다. 그는 이미 피살 10일전에 회사 측 근로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으며, 자신에 대한 위협과 중상을 폭로한 바 있었다. 이들의 살해 이후 수백 명의 농민이 치와와 주지사 관사 밖에서 항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2012년 11월 17일 베니토 후아레스 에히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캐나다 광산 회사인 매그 실버를 신코 데 마요 개발에서 축출하고 자신들의 공동 소유 지역에 100년간 광산 개발 금지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Mexico: Canadian mining company..." 2013). 매그 실버는 주민 다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에히도 총회는 멕시코 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광산개발권을 취소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MAG Silver..." 2012). 주민들은 회사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시간을 끌면서 회사가 던져주는 작은 혜택에 굴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3. 페루

#### 1) 야나코차의 콩가 광산

페루 북부 카하마르카(Cajamarca) 주에 위치한 남미 최대의 야나코차(Yanacocha) 금광을 소유한 미국의 뉴몬트(New Mont)는 2004년부터 인근의 콩가

(Conga) 광산을 개발하려 하였다. 주민들은 광산 확장이 2만 7천명에 이르는 인근 주민의 농업 및 목축에 필요한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남용하여 고산 지대의 물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반대하였다. 회사가 2011년 10월 콩가 광산 개발을 시도하자 1천명의 주민이 광산 주변 도로를 봉쇄하였다.

11월 초 회사 측은 주민들의 광산 점거를 우려하여 노동자와 중장비를 현장에서 철수하고 개발을 중단하였다. 한편 음용수를 비롯한 생활용수를 고산지대의 수자원에 의존하는 카하마르카 시에서도 24시간 파업이 전개되고 광산 진입 도로를 점거하였다. 주민들의 저항은 더욱 본격화되어 주민들의 반대 시위는 11월 24일부터 12월 4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때까지 11일간 지속되었다. 11월 26일에는 400명의 시위대가 광산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28일에는 카하마르카 공항이 폐쇄되고 주요 간선도로가 시위대에 의해 점거되었다. 29일에는 경찰이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하여 18명이 총상을 입었으며 최소 8명에서 최대 30명의 경찰이 부상당하였다(“Open letter...” 2011). 카하마르카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하자 결국 회사는 11월 30일 콩가 프로젝트의 일시 중단을 발표하고 주민들과 신뢰회복을 위해 새로운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2월 4일 60일간의 비상사태 선언은 우말라(Humala) 대통령이 광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권력을 사용한 최초의 사례였다.<sup>4)</sup> 2011년 7월 대통령에 취임한 우말라는 선거운동 당시의 ‘금보다 물’이라고 외쳤다가 이제는 물과 금을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환경운동가였던 환경부차관은 정부의 입장 선회에 항의하여 사임하였다. 광산업계와 재계는 우말라에게 시위대에 강력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에너지 광산기업들이 약속한 다음 10년간의 약 500억 달러의 투자를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Aquino 2011).

4) 비상사태는 정부의 대화 노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12월 16일 0시를 기하여 해제되었다.

2012년 1월초에는 반대운동이 재개되어 약 1천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2월초에는 마르코 아라나(Marco Arana) 신부가 이끄는 약 2천명의 콩가 반대 시위자들이 '전국 물 대행진'(Gran Marcha Nacional del Agua)을 선언하고 차량과 도보로 8일 만에 카하마르카의 고산 호수에서 출발하여 수도 리마까지 행진하였다. 이 행진은 곧 페루 전역의 광산분쟁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받았다. 우말라는 4월 23일의 텔레비전 연설에서 회사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보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정부가 19억 달러를 카하마르카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반대파가 요구하는 광산 개발 폐지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아나코차가 새로운 저수지 건설작업을 시작하자 불과 며칠만인 7월 초 다시 반대운동이 격화되었다. 3,000명의 시위대는 셀레딘(Celendín) 프로빈시아 청사를<sup>5)</sup> 공격하였으며,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고 적어도 21명이 부상당했다. 우말라는 7월 3일 다시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5명의 의원이 우말라의 정당인 가나 페루(Gana Perú)에서 탈당하였으며, 이들은 총리와 내무장관의 사임을 요구하였다.

시위가 계속되고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자 후안 히메네스 총리는 8월 하순 48억 달러의 투자가 소요되는 콩가 금광개발 프로젝트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발표하였다. 개발 보류 발표에는 카하마르카 주 주민의 78%가 개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 조사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같은 달 입소스의 또 다른 여론 조사는 전국적으로는 45%가 콩가 개발에 찬성하고 40%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여론과 지역의 여론이 큰 편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Wade 2012).

5) 페루의 행정구역은 주(departamento), 프로빈시아(provincia), 디스트리토(distrito)로 나뉜다. 디스트리토는 최하 단위이다.

정부와 회사가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하면서 한동안 중단된 반대운동은 2013년 5월말 회사 측 인사가 고산지대 4개 호수중 하나인 페롤 호의 물을 2013년 후반기에 빼낼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수백 명의 시민이 다시 경찰과 대치하면서 콩가 반대를 외쳤다. 주민들은 6월 중순에도 콩가 광산 반대 시위대 수천여명이 페롤 호 주위를 돌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였다.

식수의 오염과 농업용수의 부족을 우려한 콩가 광산 주변 지자체의 지속적인 동원은 결국 정부와 회사로 하여금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수차례의 시위와 행진, 정부의 비상사태와 폭력적 진압, 이에 따른 인명 피해를 대가로 얻어진 것이었다. 정부와 회사가 다시 개발의 애드벌룬을 띄우면 똑같은 저항과 폭력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 2) 엑스트라타의 틴타야 광산

2012년 5월 말 쿠스코 주 에스피나르 프로빈시아 주민들이 스위스 광산회사인 엑스트라타(Xstrata)의 틴타야(Tintaya) 광산이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회사의 지역개발 기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 2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부상당하였다. 우말라 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중단시키고 3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Peru uses..." 2013).

에스피나르의 시위자들은 광산개발로 살라도 강과 카니피야 강이 오염되었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엑스트라타는 프로빈시아에 내는 기부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엑스트라타 측은 세전 이익의 3%를 에스피나르에 기부하고 있는데 시위대의 30% 인상요구는 터무니없다고 되받았다. 그러나 광산개발 지역의 가난한 주민들은 오랜 경제 성장에도 아무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누적되어 있었으며, 중앙 정부와 엑스트라타는 지자체 정부가 조세 수입

을 쌓아만 놓고 제대로 쓸 줄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틴타야 시위에 대한 정부의 거친 대응은 유럽 여러 나라의 항의를 불러왔다. 벨기에, 영국, 독일, 스위스의 가톨릭교회 국제개발단체가 페루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고문당하고, 22명이 불법구금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시위참여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하였다(“Statement of Concern...” 2012). 정부 강경진압에 대한 또 다른 항의는 내부에서 나왔다. 6월 초 집권당인 가나 페루 당 소속 의원 두 명이 주민의 항의 시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비판하며 사임하였다.

2013년 3월 허순 에스피나르 프로빈시아의 공동체 지도자들은 엑스트라타의 틴타야 구리광산 측에 1억 5천만 솔(미화 5,780만 달러)을 기부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엑스트라타는 매년 2,500만 솔을 고정액으로 기부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4년 이후의 기부액이 매년 평균 2,120만 솔인 점에 비추어 상당한 인상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엑스트라타는 주민들과의 협상에서 경제적 기여, 주민 고용문제, 재화와 서비스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Grabski 2013).

틴타야 광산의 사례는 이미 개발 중인 광산에서의 금전적 보상을 둘러싼 갈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광산은 20년 정도의 채굴이 끝나면 타지로 옮겨가지만 주민들은 광산 오염의 결과(수자원 오염, 이로 인한 농업 경쟁력의 상실, 새로운 생계 마련 기회의 박탈 등)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며, 생존의 터전이 파괴된 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 3) 배릭 골드와 피에리나 및 라구나스 노르테 광산

2012년 9월 19일 캐나다 광산회사인 배릭 골드(Barrick Gold)가 소유한 안카시(Ancash) 주 소재의 피에리나(Pierina) 금광에서 경찰과 마네리옥(Mareniyoc) 공

동체 시위자들과 충돌하여 한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였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는 우말라 대통령에게 시위 진압에 치명적 무기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항의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배릭 골드는 충돌 악화를 두려워하여 채광 작업을 잠정 중단하였다. 이미 2006년에도 주민들이 광산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시위를 벌여 이때도 한명이 사망하였다. 최근의 불만은 페에리나 광산이 조업을 시작한 이래 누적되어온 수질 악화와 수량 부족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들은 회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정수 공장의 물을 제안하였으나 주민들은 수질을 믿을 수 없다면 회사에 제안을 거부하였다(“Deadly clash...” 2012).

2013년 2월에는 배릭 골드가 소유한, 리베르타드 주의 라구나스 노르테 광산에서 주민 200명이 일자리와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을 요구하면서 광산 진입로를 차단하였다. 광산은 계속 조업 중이나 주민들은 지방정부 대표와 회사 측이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요구하였다. 우말라가 중재를 촉구한 데 이어 지방정부 관리들이 중재에 나섰으며, 회사가 주민이 요구하는 일자리, 임금, 물 공급에 대한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광산 진입로 차단은 6일 만에 해제되었다(“Barrick's Peru Mine...” 2013).

두 광산 모두 해발 4천 미터 이상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산개발로 인한 엄청난 양의 용수 사용으로 고산지역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었다. 주민들은 이러한 생태계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상황에서 금광회사는 큰돈을 벌면서도<sup>6)</sup> 지역 주민의 빈곤 해결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시위로 표출된 것이다.

6) 배릭 골드는 생산량 기준 세계 최대의 금광회사로 2011년 기준으로 페에리나 광산에서 15만 온스, 라구나스 노르테에서 76만 온스의 금을 생산하였다.

#### 4) 칸덴테 코퍼의 카냐리아코 광산

2012년 12월 초 람바예케 주(州) 산 후안 데 카냐리스 소재 카냐리아코(Cañariaco) 광산에서 600명의 현지민이 광산 캠프 진입로를 점거하고 캐나다 광산회사인 칸덴테 코퍼(Candente Copper)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이미 2012년 9월 30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 주민의 91%가 카냐리아코 광산 개발에 반대한 바 있었다.<sup>7)</sup> 주민들은 자신들이 회사의 탐사나 채굴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회사가 무단으로 들어와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였으며 람바예케 주정부도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Peru: Blockade...” 2012). 카냐리스 주민 대표는 11월 리마에서 정부 당국자와 접촉하였으나 농업부 장관, 에너지 광산부장관 및 환경부 장관들도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정부대표와의 협의도 별다른 수확이 없는 가운데 12월 수자원관리청(Autoridad Nacional de Agua: ANA)이 이미 용수 사용 허가를 내준 사실을 알게 된 1월 20일 다시 광산지역 도로의 무기한 봉쇄를 선언하였다.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광산 개발이 연기되자 그 여파로 캐나다에서 회사 주가는 8.3%나 급락하였다(Emery 2013). 2013년 1월 25일에는 주민 수백 명이 시추가 시작된 광산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적어도 4명, 의사의 증언에 의하면 12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경찰은 고무탄만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부상자들은 실탄에 부상을 입었다고 증언하였다(“Clash...” 2013). 경찰의 무자비한 진압 방식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7) 2012년 7월 8일의 주민총회에는 총 3,480명의 주민 중 725명이 참석하여 70%의 찬성률을 보였으며 9월 30일의 투표에서는 1,896명이 참석하여 91%가 반대하였다. 7월의 투표는 개발 찬성과 혹은 회사에 회유된 주민들에 의한 법적 효력이 의문시되는 투표이며 9월의 투표는 주민 과반수 참석에 반대가 90%여서 주민의 충의를 전달한 투표로 볼 수 있다(“Cañaris...” 2013).

주민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주민 합의 없이 이미 광산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것과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카나리스 강이 이미 오염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이 지역에 광산이 들어서면 생태계 교란으로 이 지역 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운무림(cloud forest)이 사라지고, 카나리스 강의 수원지가 오염될 것이며, 강물이 오염되면 33,000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었다(Moore 2013).

회사는 2013년 5월 중순 경제사정과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잠정적으로 광산개발 활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Minera...” 2013). 주민 대표는 회사의 탐사활동 중단은 새로운 시위를 막기 위한 조치일 뿐이며 회사가 완전 철수하기 전에는 대화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 여러 부서와의 대화 모임에는 지역 대표를 내보내 지역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보하려 하였다(“Lambayeque...” 2013). 주민의 78%가 빈곤층이고, 95%가 월소득 100솔 이하인 지역민에 외부 투자는 매력적인 것이었다. 카나리스 지역에 4천만 솔, 살라스(Salas)에 4,200만 솔, 인카우아시(Incahuasi)에 5,800만 솔을 포함하는 발전 방안이 이미 2013년 4월의 주민대표와 정부의 광산 갈등 관리팀 사이의 협의에서 일차 합의되었다(“Cañaris...” 2013). 현재도 진행 중인 주민대표와 정부 여러 기관 대표와의 회합에서는 시위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광산 인근 여러 지역에 대한 발전 기금의 분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4. 칠레

##### 1) 배릭 골드와 파스쿠아 라마 광산

파스쿠아 라마(Pascua Lama) 광산은 금 매장량이 1,500만 온스, 은 매장량이 6억 7,500만 온스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의 금광산 중 하나로 해발 3,800미터에서 5,200미터에 이르는 안데스 산맥 정상 부분에 위치해 있으며, 칠레와 아르헨티나에 걸쳐 있다(Pascua-Lama Project). 매장량의 75%는 칠레 쪽에 나머지 25%는 아르헨티나 쪽에 있다. 파스쿠아 라마는 칠레와 아르헨티나 간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양국 개발 프로젝트로 세계 최대의 금광회사인 캐나다의 배릭 골드가 85억 달러 투자분 중 이미 48억 달러를 투자하여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나 현재는 빙하와 관련된 환경법규 위반 혐의로 개발 작업이 중단되었다.

파스쿠아 라마의 개발은 2006년 칠레 환경당국이 개발 계획을 승인하고, 2009년 칠레와 아르헨티나가 관리 방안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금광산은 원래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데다 광산이 고산지대 빙하와 접해있어 고산지대 빙하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하였다. 파스쿠아 라마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하루 38톤의 폭약과 아타카마 주의 우아스코 계곡에서 9백만 갤런의 물을 사용해야 한다. 금을 얻기 위해 27톤의 시안화용액을 사용해야 하고, 금 1온스를 얻기 위해서는 1,600갤런의 물이 필요하였다(Tory and Adams 2013, 8)

본격적인 반대운동은 2012년 9월과 10월 네 곳의 원주민 공동체가 지하수 및 에스트레초 강과 우아스코 강의 오염, 회사의 환경법규 위반에 대해 칠레 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다. 2013년 4월 중순 칠레 법원은 배릭 골드 측에서 적절한 물 관리를 위한 충분한 환경인가를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때까지 광산 개발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였다. 그 여파로 4월 하순 배릭 골드의 주가는 40%나 하락하고 신용평가가 낮아지면서 파스쿠아 라마 광산투자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결국 세 명의 남미 담당 임원이 사직하였다.

5월 30일에는 칠레 정부가 배릭 골드에 벌금 1,600만 달러를 부과하였다. 칠

레 당국에 의하면, 배릭 골드는 수로작업을 마친 후 표토제거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로작업을 종료하기도 전에 표토 제거작업에 돌입한 것이 문제였다. 수로 관리 미비 때문에 암석더미가 무너져 1,500평방미터의 목장이 파괴되었다. 2013년 7월 칠레 항소법원은 다시 배릭 골드가 물 오염을 막기 위한 하부구조를 건설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였다(“Barrick Gold’s...” 2013). 결국 2013년 10월 말 회사는 건설비 상승과 연이은 법적 제재를 이유로 파스쿠아 라마에서 모든 개발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TIMELINE-Barrick Gold...” 2013).

## 2) 골트코프와 엘 모로 구리 광산

엘 모로(El Morro) 광산은 아타카마 주에 위치한 금·구리 광산으로 캐나다의 골드코프(Goldcorp)와 뉴 골드(New Gold)가 각각 70%와 30%의 지분을 갖고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2017년부터 조업을 개시할 예정이다(Paley 2012a). 2012년 말 현재 금 670만 온스, 구리 49억 파운드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년 동안 39억 달러의 투자가 예상되는 이 광산은 우아스코 계곡에서 하루 2,200톤의 구리 정광을 생산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안데스 산맥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2,500헥타르의 개발 예정지 중에 디아기타(Diaguita) 원주민의 영토가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디아기타 공동체는 광산 개발 과정에서 원주민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산이 강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광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칠레 대법원은 2012년 4월 27일 골드코프가 디아기타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은데 대해 엘 모로 구리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무효화하는 하급심을 수용하였다. 법원은 회사가 원주민 지역 개발 시

원주민과의 사전협약을 의무화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69호와 칠레 원주민법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하고,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2013년 10월 22일 아타카마 주(州) 환경평가위원회는 엘 모로 광산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승인하였으나 법원은 한 달 후 지역 원주민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개발계획을 다시 중단시켰다.

### 3) 이드로아센 발전소 건설

캐나다 광산회사들은 칠레 전기 수요의 33%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기로 광산회사들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광산회사들이 칠레의 발전소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은 광산 개발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 점에서 발전소 건설계획 반대는 사실상 광산회사들의 광산개발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드로아센(HidroAysén)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칠레 최대의 전기회사인 콜분(Colbún)과 스페인의 엔데사(Empresa Nacional de Electricidad S.A.: Endesa)가 합작으로 36억 달러를 투자하여 파타고니아의 바케르(Baker) 강과 파스쿠아 강에 5개의 댐을 건설하여 2,750MW의 전기를 칠레 중부지방에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아센(Aysén)에서 수도 산티아고까지의 전력선 건설을 포함하는 이 계획은 23,000헥타르의 숲, 6개의 국립공원을 파괴하고 11개의 국가보호지역에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드높았다.

이드로아센 댐 건설의 환경영향평가는 2011년 5월 9일 통과되었으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비난받았다. 2011년 5월에는 이 계획에 반대하여 5만 명이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칠레 국민의 74%가 이 계획에 반대하였다(Mychalejko 2012). 시위는 폭력과 강경 진압으로 얼룩져 국제앰네스티가 극단적 물리력 사용, 부당한 최루탄 사용, 금속탄, 자의적 체포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였다. 칠레 대통령 세바

스티안 피네라(Sebastián Piñera)는 시위자들에게 반테러리스트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편 2012년 5월 8일 환경영향평가 위원회는 호주의 오리진 에너지(Origin Energy)와 엑스트라타의 칠레 자회사 에네르히아 아우스트랄(Energía Austral)이 합작으로 진행하는 6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쿠에르보(Cuervo) 강 수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쿠에르보, 콘도르, 블란코 강에 각각 하나씩 모두 3개의 댐을 건설하여 1,000MW의 전기를 생산하려는 계획이다. 그러나 5월 12일 대법원이 환경단체 요구를 수용하여 건설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 프로젝트의 문제는 화산지대를 포함하는 단층지대에 건설되어 지진이나 화산 폭발의 위험이 있고 약간의 지진활동으로도 물이 넘치게 되면 인근 지역이 범람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사실상 3개 댐을 건설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쿠에르보 댐 하나만 대상으로 하여 환경영향을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Maxwell 2012).

## 5. 결론

위 사례에서 살펴본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을 둘러싼 갈등 양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광산개발에 필수적인 용수 사용 우선권 및 수질 오염을 둘러싼 대립(멕시코의 쿠스카탄, 신코 데 마요 광산, 페루의 쿵가, 피에리나, 카나리아코 광산, 칠레의 파스쿠아 라마, 엘 모로 광산 등), 주민의 사전 동의 없는 광산개발(멕시코의 신코 데 마요, 페루의 쿵가, 카나리아코, 칠레의 엘 모로), 광산회사의 공동체 투자 미흡이나 투자 약속 위반, 경제적 혜택의 배제에 대한 불만(멕시코의 라 플라토사, 페루의 틴타야, 라구나스 노르테) 등을 들 수 있다.

회사 측의 위협과 폭력, 경찰의 과잉진압(멕시코와 페루의 모든 사례), 대화 거부 등은 갈등을 더욱 부추긴다. 특히 페루의 경우 경찰과의 충돌로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잠시 개발 중단을 선언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다. 콩가와 틴타야의 경우 주민들의 반대 시위 이후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콩가, 피에리나, 카나리아코 광산에서는 충돌 이후 회사가 잠정적 생산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는 충돌이 확산되어 광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 글에서 검토한 사례에서도 국제적 평판이나 주주 총회에서 주주들의 인식 변화 등은 기업의 주가와 경영진의 거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멕시코 라 플라토사 광산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서한은 광산회사인 엑셀론의 미국 수출입은행 자금 차입을 막았으며 광산 지역 주민대표와 캐나다 지원 조직은 주주총회에서의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폭로하여 CEO를 퇴진시키고 회사에 대한 투자기금을 환수케 하여 회사에 타격을 주었다.

갈등의 원인 중의 하나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사전 동의 없는 개발 시도는 대부분 정부와 회사의 유착관계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회사는 최소한의 지지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에 일정액을 투자함과 동시에 회사를 지지하는 그룹에 편파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를 분열시킨다.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 쿠스카탄 광산 인근의 산 호세 프로그레소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광산 반대파와 찬성파 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학교와 병원에서도까지도 반대파와 찬성파가 대립할 정도였으며, 회사가 개발을 지지하는 시장과 시청에 상당액의 선거 및 개발 자금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한편 개발 초기나 대안적 생계수단이 있는 지역에서는 광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한 반면 이미 기개발 상태인 경우에는 회사와의 대화를 통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경향이 보인다. 페루 콩가나 카나리아코, 칠레

파스쿠아 라마의 경우(그리고 칠레 발전소 반대운동의 경우도 포함하여)에서 보이는 것처럼, 식용수나 농업용수로 맑은 물이 필요한 경우, 혹은 이미 농업이나 목축업으로 농민의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격렬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다. 동시에 빈곤한 오지 주민들의 경우 광산개발에 대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눈앞의 개발 이익(전기 이용, 의료 서비스, 교육 혜택 등)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멕시코의 라 플라토사, 페루의 틸타야, 라구나스 노르테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위해 회사와의 대화를 요구하였으며, 카나리아코 광산에서는 광산개발을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칠레의 경우는 대부분의 갈등이 시위나 폭력적 방법보다는 사법 절차에 의해 광산개발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파스쿠아 라마, 엘 모로, 그리고 발전소 건설계획 모두에서 광산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나 정부기구는 모두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광산 건설 중단 조치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는 칠레 사회가 상대적으로 갈등 해소의 제도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충실하다고 볼 수 있다.

칠레도 완전한 예외는 아니지만 멕시코와 페루의 사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과정이 경찰의 폭력적 진압과 회사의 여러 가지 불법 활동(뇌물, 법규 위반, 공동체 분열 조장 행위 등)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유시장 경쟁과 민간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광산개발이 그러하긴 하지만 이 글에서 검토한 사례만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광산개발은 자유로운 시장경쟁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회사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무소불위의 영향력(지자체 및 주민의 포섭, 각종 기술적 자료의 준비,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지역사회 투자, 영터러 공청회 개최, 정부 지원 동원),

그리고 경찰의 과잉진압 등 권력자원의 총체적 동원을 통해 전개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조직, 국내외 환경 및 인권단체와의 연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적 광업 개발 현장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훼손, 지역주민의 생업에 대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quino, Marco. 2011. "Peru miners fear Conga-style protests could spread." *Mineweb*. December 2.  
<http://www.mineweb.com/mineweb/content/en/mineweb-fast-news?oid=140853&csn=Detail>
- "Barrick Gold's US\$8.5 Pascua-Lama mine formally suspended by Chilean court until pollution standards met." *Financial Post*. July 15, 2013  
<http://business.financialpost.com/2013/07/15/barricks-pascua-lama-mine-to-have-work-suspended-by-chilean-court-report/>
- "Barrick's Peru Mine Blocked by Residents." *MAC: Mines and Communities*. March 5, 2013.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2171>
- "Canadian Pension Plan Divests from Excellon Resources." *CNW*. July 18, 2013.  
<http://www.newswire.ca/en/story/1200319/canadian-pension-plan-divests-from-excellon-resources>
- "Cañaris: cuarta mesa de diálogo no abordó conflicto por proyecto Cañariaco." *El Comercio Perú*. 6 de abril de 2013.  
<http://elcomercio.pe/peru/lima/canaris-cuarta-mesa-dialogo-no-abordo-conflicto-proyecto-canariaco-noticia-1560127>
- "Clash at Canadian-owned Peru mine leaves at least 4 hurt." *CBCNews*. January 25, 2013.  
<http://www.cbc.ca/news/world/clash-at-canadian-owned-peru-mine-leaves-at-least-4-hurt-1.1381767>
- "Deadly clash at Peru protest over Barrick gold mine." *BBC*. September 20, 2012.  
<http://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19669760>
- De la O, Moravia. 2013. "The Way the Town is Now: Canadian mine brings violence and social division to Oaxacan community." *The Dominion*. February 6.  
<http://dominion.mediacoop.ca/fr/story/way-town-now/15803>
- "Detención arbitraria de miembros de la Comunidad del Ejido La Sierrita." *Red Nacional de Organismo Civiles de Derechos Humanos*. 11 de noviembre de 2013.  
[http://www.redtdt.org.mx/d\\_acciones/d\\_visual.php?id\\_accion=322](http://www.redtdt.org.mx/d_acciones/d_visual.php?id_accion=322)
- Emery, Alex. 2013. "Candente Poised for Worst Week Since '08 on Protest: Lima Mover." *Bloomberg*. January 19.  
<http://www.bloomberg.com/news/2013-01-18/candente-poised-for-worst-week-since-08-on-protest-lima-mover.html>

- “Excellon Once Again Break Negotiation with Communal Landowners of La Sierrita.” MAC: Mines and Communities. August 20, 2012.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1865>
- Godoy, Emilio. 2013. “Locals Risk Their Lives Fighting Mining in Mexico.” *Inter Press Service*. June 23.  
<http://www.ipsnews.net/2013/06/locals-risk-their-lives-fighting-mining-in-mexico/>
- Grabski, Tiffany. 2013. “Local leaders demanding some US\$58mn from Xstrata’s Tintaya-Antapaccay.” *BNamericas*. March 20.  
<http://www.bnamericas.com/news/mining/local-leaders-demanding-some-us58mn-from-xstratas-tintaya-antapaccay>
- Hazin, Miryam Saade. 2013. *Desarrollo minero y conflictos sociambientales: Los casos de Colombia, México, y Perú*.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Cepal).
- “Lambayeque: la mesa de diálogo de Cañaris no verá el conflicto minero.” *El Comercio Perú*. 17 de junio de 2013.  
<http://elcomercio.pe/peru/lima/lambayeque-mesa-dialogo-canaris-no-vera-conflicto-minero-noticia-1591726>
- “MAG Silver to challenge illegal eviction from Cinco de Mayo.” *MAG Silver Corp*. November 20, 2012.  
<http://www.magsilver.com/s/NewsReleases.asp?ReportID=558467>
- Maxwell, Amanda. 2012. “Approval of another large dam in Patagonia - called Río Cuervo - highlights Chile’s priority to ramp up energy generation, even at the potential expense of human safety.” *Switchboard*. May 8.  
[http://switchboard.nrdc.org/blogs/amaxwell/approval\\_of\\_another\\_large\\_dam.html](http://switchboard.nrdc.org/blogs/amaxwell/approval_of_another_large_dam.html)
- “Mexican landowners win first step in legal battle to reclaim their lands.” MAC: Mines and Communities. April 28, 2013.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2268>
- “Mexico: Another opponent of Canadian mining is assassinated.” MAC: Mines and Communities. March 20, 2012.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1561>
- “Mexico: Canadian mining company "expelled" by landholder group.” MAC: Mines and Communities. November 25, 2013.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2019>

- “Minera Candente Copper suspendió sus actividades en proyecto Cañariaco.” *El Comercio Fortafolio*. 17 de mayo de 2013.  
<http://elcomercio.pe/economia/peru/minera-candente-copper-suspendio-sus-actividades-proyecto-canariaco-noticia-1577706>
- “Mining in Chile, Copper Solution.” *The Economist*. April 27. 2013.  
<http://www.economist.com/news/business/21576714-mining-industry-has-enriched-chile-its-future-precarious-copper-solution>
- Moore, Jennifer. 2013. “Cañaris: the first mining conflict of the year?” *Cooper Action*. January 17.  
<http://www.cooperaccion.org.pe/opina/43-cooperaccion-opina/62-canaris-the-first-mining-conflict-of-the-year>
- Munson, James. 2012. “OSC complaint alleges mining firm kept investors in the dark.” *iPolitics*. August 2.  
<http://www.ipolitics.ca/2012/08/02/osc-complaint-alleges-mining-firm-kept-investors-in-the-dark/>
- Mychalejko, Cyril. 2012. “Unveiling Canada’s Role in Chile’s Environmental and Political Conflicts.” *Upside Down World*. March 21.  
<http://upside-down-world.org/main/chile-archives-34/3527-unveiling-canadas-role-in-chiles-environmental-and-political-conflicts->
- Observatorio de Conflictos Mineros de América Latina.  
<http://www.conflictosmineros.net/>
-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of Peru.” 10 December. 2011.  
<http://lammp.org/2011/12/10/open-letter-to-the-president-of-peru/>
- Paley, Dawn. 2012a. “Chilean Supreme Court Red Lights Goldcorp Mine.” *Vancouver Media Cooperative*. April 29.  
<http://vancouver.mediacoop.ca/story/chilean-supreme-court-red-lights-goldcorp-environmental-assessment/10689>
- Paley, Dawn. 2012b. “Tensions Flare over Vancouver-owned Mine in Oaxaca.” *Vancouver Media Co-op*. February 13.  
<http://vancouver.mediacoop.ca/story/tensions-flare-over-vancouver-based-mine-oaxaca/9900>
- Pascua-Lama Project, Barrick.  
<http://www.barrick.com/operations/argentina-chile/pascua-lama/default.aspx>

- “Peru uses emergency rules to end violent protests at Xstrata mine.” MAC: Mines and Communities. May 26, 2013.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1721>
- “Peru: Blockade at Cañariaco Norte project.” MAC: Mines and Communities. December 11, 2012.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2047>
- “Statement of Concern and Solidarity with the Espinar Community in view of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and ilegal detention of 22 civilians.” 29 May. 2012.  
[www.broederlijkdelen.be/component/docman/doc\\_download/11239-standpunt-solidariteitsorganisaties-espinar?Itemid%3D835+&cd=1&hl=ko&ct=clnk&gl=kr](http://www.broederlijkdelen.be/component/docman/doc_download/11239-standpunt-solidariteitsorganisaties-espinar?Itemid%3D835+&cd=1&hl=ko&ct=clnk&gl=kr)
- “TIMELINE-Barrick Gold shelves development of Pascua-Lama.” Reuters. October 31, 2013.  
<http://www.reuters.com/article/2013/10/31/barrick-results-idUSL1N01F1UF20131031>
- Tory, Sarah & Rosalind Adams. 2013. “In Chile’s dry north, big mining threatens a vital resource.” *The Santiago Times*. August 24.  
<http://santiagotimes.cl/in-chiles-dry-north-big-mining-threatens-a-vital-resource/>
- “URGENT ACTION (Mexico): Excellon Resources, Inc. Threatens Landowners of La Sierrita with Arrest and Judicial Action.” MiningWatch Canada Mines Alert. July 11, 2012.  
<http://www.miningwatch.ca/get-involved/urgent-action-mexico-excellon-resources-inc-threatens-landowners-la-sierrita-arrest-and>
- Various. 2012. “Mining activists opposed to Vancouver-based MAG Silver’s mine project in Chihuahua, México murdered.” *rabble.ca*. October 30.  
<http://rabble.ca/blogs/bloggers/miningwatch/2012/10/mining-activists-opposed-vancouver-based-mag-silvers-mine-project>
- “Violent destruction of protest camp at Excellon Resources’ La Platosa mine.” MAC: Mines and Communities. November 1, 2012.  
<http://www.minesandcommunities.org/article.php?a=11979>
- Wade, Terry. 2012. “Newmont mine "on back burner": Peru cabinet chief.” *Reuters*. August 23.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8/23/us-peru-mining-newmont-idUSBRE87M0MK20120823>